보석박물관 - 익산문화관광재단

관광 활성화 '콜라보레이션'

'Go 100 Star, 익산' 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협력

보석박물관(관장 유은미)와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은 25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익산문화광관재단은 올해 1월 익산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익산아트센터에 조성된 'Go 100 Star(고백스타) 트릭아트' 공간을 개관하고 서동과 선화의 사랑,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고백 스토리텔링으로 익산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홍보물 비치 뿐 아니라 교류 홍보를 위한 장소 제공부터 양 기관을 방문한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 혜택 제공, 'Go 100 Star(고백도시), 익산'에 걸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협력까지 관련 업무를 함께 추진한다.

보석박물관은 익산아트센터 'Go 100 Star(고백스타) 트릭아트'를 관람한 후 방문 시, SNS, 고백스타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입장료 30% 할인 및 커플반지(이니셜)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은미 보석박물관장은 "익산시는 '고백도시 익산을 500만명 관광도시로'라는 2020년 슬로건을 내걸고 익산시 관광활성화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의 문화관광 홍보마케팅 및 귀금속보석 연계 상품 개발을 통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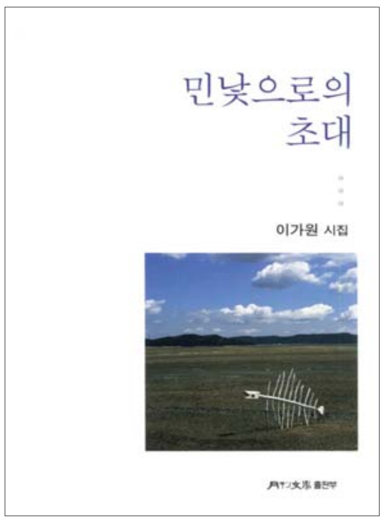
장성국 문화관광재단 이사는 "전국 유일의 보석박물관과 업무협약을 뜻깊게 생각하며 두 기관이 한 발 나아가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관광객이 체감하는 알찬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석박물관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차 잠정 휴관중이나 코로나19종식 후 재가동하면 관광객이 대거 방문할 것을 대비해 다양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직설적 표현이 전하는 신선함

이가원 첫 시집 '민낯으로의 초대'



가수이자 시 낭송가, 색소폰 연주자 이가원이 첫 시집 '민낯으로의 초대'를 출간했다.

유년시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저자가 겪어온 삶의 상황과 감정들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시적 기교보다는 직관적인 감성 표현이 주를 이뤘다. 기교 없이 직설적인 표현들은 오히려 역설적인 신선함으로 돋보인다.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사어(死語·과거에는 쓰였으나 지금은 쓰이지 않는 말)도 눈에 띈다. 흘부들한(축 처진), 바름바름(조심스레) 등 이미 사용되지 않는 우리말 중 일부를 시에 활용했다.

'가을 하늘이 열린 엿샛날 / 새끼줄 꺼내 짚신을 엮는다 // 미끈하진 않지만 사랑스런 내 분신들 / 시골 오일장 한 귀퉁이 덕석 위에 / 바름바름* 내놓는다 // 두근대는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해줄 / 누군가를 기다리며'

-민낯으로의 초대 중-

저자의 시집은 총 5부로 구성됐다. '노젓는 하늘바다', '소녀의 노래', '추억이 그리움을 부른다', '내 삶의 방정식', '해안으로 가는 길' 등 청소년부터 중장년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상대로 공감을 불러올 만한 소재들을 다룬다.

/뉴시스

국내 웹툰 IP, 해외서 애니메이션화 되다

네이버웹툰 '신의 탑' 등 한·미·일 동시 방영

네이버웹툰의 대표적인 판타지 작품 〈신의 탑〉을 비롯해 〈갓 오브 하이스쿨〉, 〈노블레스〉 지식재산권(IP)이 순차적으로 애니메이션화 돼 올해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동시 방영된다고 26일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참여해 국내 웹툰 IP가 해외에서 애니메이션화 되는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인지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애니메이션화에는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기업 크런치롤(Crunchyroll)이 주요 투자·유통사로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크런치롤은 미국의 종합미디어그룹 워너미디어의 브랜드로, 전 세계적으로 6000만명의 활성 사용자 및 200만명 이상의 유료 사용자를 보유한 애니메이션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다. 크런치롤은 미국을 중심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 등에서도 서비스하고 있어, 네이버웹툰 IP의 글로벌 발판을 넓힐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도 프로덕션을 맡았다. '텔레콤 애니메이션 필름'(Telecom Animation Film)이 〈신의 탑〉 제작을 책임지며, '마파'(MAPPA)는 〈갓 오브 하이스쿨〉, '프로덕션I.G'(Production I.G.)가 〈노블레스〉의 제작을 담당한다.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작의 독특한 세계관과 참신한 캐릭터들을 수준 높게 표현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신의 탑〉이 4월 1일에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다. SIU 작가의 웹툰 〈신의 탑〉은 2010년부터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했다. 주인공인 소년 '밤'이 자신의 전부였던 소녀 '라헬'을 찾아 떠나는 모험 이야기로, 탑이라는 독특한 배경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는 스토리 구성을 갖춰 해외에서도 두터운 팬층을 자랑한다. 웹툰 〈신의 탑〉은 전 세계 누적 조회 수 45억을 돌파한 바 있다.

애니메이션 〈신의 탑〉은 크런치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을 포함한 북미, 남미 및 유럽 지역에 방영, 일본에서는 'Tokyo MX', 'BS11' 등 유명 TV 채널 등을 통해 일본 전역에 방영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시리즈on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김명준, 양정화 등 실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성우들이 녹음에 참여한다. 애니메이션 〈신의 탑〉 프로모션 영상은 네이버웹툰 공식 SNS 계정에서 이날 오전 선공개됐다.

네이버웹툰 IP의 애니메이션화는 세계 최대 시장을 가진 미국과 일본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에게 발굴되고 원천 콘텐츠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만화 및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전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만큼 시장 규모가 크고 활성화되어 있다. 탄탄한 산업 기반과 훌륭한 콘텐츠를 갖춘 해외 시장에서 네이버웹툰 IP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네이버웹툰은 〈신의 탑〉, 〈갓 오브 하이스쿨〉, 〈노블레스〉 애니메이션화를 시작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웹툰 IP의 영상화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김준구 대표는 "북미 월 실사용자(MAU) 1000만 돌파 등 가파르게 성장을 거듭해온 네이버웹툰이 원천 콘텐츠로서도 세계적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네이버웹툰의 우수한 작품들을 포함하여 한국의 웹툰이 해외에서도 더 많은 주목을 받고 글로벌 무대로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신규 입점 공예 상품 신청하세요'

전통문화전당, 내달 27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에

한국전통문화전당은 2020년 전주공예품전시관에 신규 입점할 다양한 우수 공예 상품을 다음달 27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전주 지역(전북 포함) 작가(업체)와 전국에서 활동하는 공예작가 및 업체다. 접수는 내달 26~27일 이틀간 전당 5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된다.

심사는 전주공예품전시관에 위촉된 4인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오는 4월 초 진행되며 주로 ▲상품성 및 역량 ▲디자인의 창의성 ▲상품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입점이 선정된 작가는 입점협약 기간인 1년간 판매관에서 다양한 상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주한옥마을 중앙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은 1일 평균 1000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곳으로, 판매관을 비롯해 명품관, 체험관, 전시 1관, 명인명장관 등 총 7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전주공예품전시관 내 종합판매관은 크게 판매관, 명품관 2개 관으로 구성됐다. 명품관(64㎡)은 지역 무형문화재 장인이 손수 제작한 우수 수공예 상품을, 판매관(439㎡)은 공예작가와 업체의 상품이 전시·판매되고 있다.

특히 올해 입점 상품들은 3월 정식 오픈되는 온라인숍 '명인몰'에서도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 또는 공예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관광공사-SK텔레콤,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 실시

내달 2~31일 개별제안서 접수

한국관광공사와 SK텔레콤이 '2020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을 실시한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은 공사가 보유한 71만여 건의 다국어 관광정보 개방서비스 '투어API'와 SK텔레콤의 오픈 플랫폼 'T맵 및 위치기반 API'를 활용해 우수 앱을 선발하는 공모전이다.

관광정보를 활용한 앱 개발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혁신적인 여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 3월 2일부터 31일까지 개발제안서 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외국어앱 특별상을 비롯해 총 11개 팀에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출시한 앱의 국내·외 홍보 마케팅,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와 함께 SK텔레콤의 파트너 협업 프로그램, 공동 프로젝트 진행 기회도 부여될 예정이다.

/뉴시스